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순원
소설가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중 가장 정직한 것이 땀과 눈물이다. 고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땀이 나고, 참을 수 없는 격정이 마음을 흔들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그러나 땀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온도의 변화만으로도 흘릴 수 있지만 눈물은 억지로 흘릴 수 없다.

눈물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슬픔과 비탄을 표현하는 침묵의 언어이다. 그것은 때로 백 마디의 말보다, 기도보다 호소력이 강하다. 탈무드에도 ‘천국의 문은 기도에는 닫혀 있더라도 눈물에는 열려 있다’고 적혀있다.

눈물에는 그가 처한 상황의 진실이 담겨

눈물의 정치학

있다. 그가 말하는 뜻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타인의 눈물을 보면 누구나 일단 숙연해진다. 약하고 서럽고 그래서 껍박박는 자의 이미지가 눈물 몇 방울 안에 들어 있다. 단순히 약해 보여서만이 아니라 눈물이 우리 감정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와 연결될 때는 어떤 화학적인, 또 사회적인 반응을 일으킬까. 지난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6.4지방선거 전에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기로 전격 선언했다. 이것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대표는 두 번 눈물을 내비쳤다.

언론에 조금은 벌일처럼 보도되었듯 정치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주 드문 경우도 아니다.

문득 그것이 궁금해 찾아보니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박근혜의 눈물’이 있었다.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텔레비전을 통해 정당대표 연설을 하면서였다.

“1960년대 가뭄이 심했던 어느 날, 지방 순시를 다녀오신 후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식사를 안

하냐고 물으시니 한참동안 천장만 바라보시다가, 지방에 가보니 아이들의 얼굴에 버짐이 피어 있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먹지 못해서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부어 있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셨습니다. 나가시는 뒷모습에 아버지의 어깨는 흔들리고 있었고, 저희 식구는 아무도 저녁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일치시키는 대목에서 흘린 눈물의 반응은 곧바로 왔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지지도가 추락한 한나라당의 깃발 아래로, 아니 박근혜의 깃발 아래로 다시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고, 박 대표는 전국 지역구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때의 눈물은 후에도 여의도 강변의 천막당사와 함께 지지자들의 기적 속에 오래 남아있는 장면이 되었다.

이처럼 정치인의 눈물은 종종 그 사람뿐 아니라 한 국가의 정치 운명을 바꾸어놓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 선거 광고방송으로 나온 ‘노무현의 눈물’도 그랬다.

존 레논이 부르는 ‘이메진’이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가운데 노동자와 솔잔을 나누는

노무현 후보의 얼굴 위로 ‘붉은악마’의 월드컵 응원곡 고달픈 삶의 현상이 오버랩되어 스친다. 그러다 화면은 갑자기 흑백으로 바뀌고, 노무현 후보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가운데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얼굴을 타고 흐른다.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한 눈물 한방울이 모든 연령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눈물이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1972년 미국 민주당의 대선 주자였던 에드먼드 머스키는 어떤 지역 신문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 도중에 갑자기 복받쳐 올라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한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인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의 지지율은 곧바로 수직 하락해버렸다.

지난 2일 두 차례 보인 김한길 대표의 눈물은 앞으로 신당 창당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국민들 마음 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눈물만큼 빨리 마르는 것도 없지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눈물만큼 오래 기억되는 것도 드물다. 그것은 남녀의 연애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다.

기고



임 내현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북구·국도교통위)

지난 12일, 지구의 남쪽 끝에 태극기가 휘날렸다. 제2과학기술인장보고기지의 준공식 날이었다. 1968년 남극대륙인근의 킹조지섬에 세종기지지 세우진 후 26년 만에 남극대륙 본토에 우리 나라의 과학기지가 세워진 것이다. 남극은 남극조약에 따라 28개국 공동 관리하고 있는데,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칠레 등 9개국에 불과했다. 장보고기지를 완공하면서 우리 나라는 남극에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는 열 번째 나라가 되었다. 장보고기지는 기존 남극의 주변해역 중심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본토의 부존자원, 기후변화, 생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센터가 될 것이다.

장보고기지의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

남극,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여행

의장이 참석하는 국회 순방단이 꾸려졌다. 앞서 지난 2013년 1월 국토해양위에서 세종기지를 방문하여 우리 나라와 남극진출 국가들의 극지연구 현황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그때 세종기지의 운영과 극지연구 현황, 장보고기지의 건설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세종기지 사찰을 다녀온 다음에 산철산특별위원으로서 예결위 회의에서 장보고기지 건설 현황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해 정책질의를 했었다. 남극개발, 극지연구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덕에 국회 순방단의 일원으로 1년 사이 두 번째 남극을 방문하게 되었다.

장보고기지 준공식은 눈바람이 잦아든 화창한 하늘 아래 열렸다. 한국에서 참석하의 원단과 극지연구소 관계자, 미국·뉴질랜드·이탈리아 과학기지 대표, 현지 건설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다. 세종기지 방문 당시 험준한 눈밭 위에 토대만 닦고 있던 장보고기지가 어느새 위용을 드러낸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대견스러웠다.

장보고기지 준공식이 끝나고, 인근 미국 맥머도 기지와 뉴질랜드의 스콧 기지에 초청을 받아 둘러보았다. 특히 남극대륙 최대 기지인 미국 맥머도 기지가 인상 깊었다. 이 기지는 올해로 설립 59년째인데, 여름에는

1200여명, 겨울에는 100~200여명이 상주하며 기지의 각 건물을 순회하는 셔틀버스와 카페, ATM기기까지 있는 하나의 작은 도시였다. 미국 남극과학연구는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총괄하고, 맥머도 기지는 남극연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학재단 소속의 켈리 포크너 박사가 우리 일행에게 맥머도 기지를 안내하며 남극개발, 극지연구, 남극탐험의 역사 등에 관한 설명을 해 주었다.

우리 나라 방문단은 미군 수송기와 미국이 건설한 활주로를 이용했는데, 처음에 계획된 큰 수송기가 아니라 작은 비행기를 탔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 활주로는 앞반이 아니라 빙봉 위에 건설됐기 때문에 얼음이 녹아 큰 수송기를 운용하기 어려운 탓이었다. 동행한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장보고기지 근처의 이탈리아 기지와 앞반활주로를 공동 개발해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반활주로를 건설되면 기후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교통로를 확보하게 되어 남극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남극은 중국과 인도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남극환경보호의정서에 따라 2048년까지 어떤 국가도 남극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

는 남극에 진출한 국가들이 영유권 주장과 개발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남극대륙 본토에 장보고기지를 건설하면서, 2048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남극 영유권 주장과 개발 경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남극의 자연은 혹독하다. 장보고기지가 위치한 테라노바만은 영하 40도를 오르내린다. 거센 산바람과 눈폭풍에 맞서 기지를 완공할 때까지 우리 건설근로자들의 노고가 컸다. 푸른빛의 장보고기지를 바라보며, 이런 극한의 환경에도 튼튼하고 안전한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는 점이 자랑스러웠다.

우리나라는 발해와 고구려 시대에 대륙을 호령했지만, 어느새 대륙의 끄트머리 한반도에 갇혀버렸다. 신라시대 우리 민족의 호방한 개척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 장보고다. 장보고기지는 장보고의 개척정신을 계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극에 기지를 짓고, 과학연구를 통해 인류의 지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프론티어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장보고기지의 완공은 우리나라의 정신적 영토가 확장되고, 과학연구를 통해 지구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긴 여행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社 說

이해 얹힌 호남고속철 ‘누더기’ 만들 건가

광주 송정역과 목포역을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기본계획 변경안 고시 이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착공 시점조차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래로라면 2020년에도 개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면서 당초 기본계획 노선은 폐지됐고, 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무안공항을 경유하되 신설 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이후 무안공항 경유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에 나섰지만 비용 편익분석(B/C)이 낮고,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효과가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지난해 국회 심의에서 어렵사리 기본계획 수립 등 설계비 명목으로 4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지만 여태껏 착공 시기 등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년 전과 같은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지역에선 노선 및 정차역 변경 요구가 터져나오면서 ‘누더기 저속철’이 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2단계 건설을 둘러싼 이 같은 혼란은 정부와 전남도, 지역사회 모두에 책임이 있다. 지역 내에서도 노선 갈등이 계속되고 정부도 이를 발미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책사업이 방향을 잃은 채 휘청대고 있는 것이다.

‘호남 소외’의 상징이었던 호남고속철은 MB정권의 예산 구박을 힘겹게 버텨내고 올해 말 1단계(충북 오송~송정역, 182.3km)가 완공된다. 이어지는 2단계의 2017년 완공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앞다퉀 약속했던 지역 숙원사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눈물의 호남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기 완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법 찾아야

광주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은 대중교통 관련이라고 한다. 시내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이 현실과 동떨어진데다 서비스 질도 낮고, 영업용 택시들도 불친절하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전자민원, 콜센터, SNS 등에 등록된 1600만 건의 민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관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58.4%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11년 41.5%, 2013년 39.6%로 감소 추세에 있던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이다. 민원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안내 정보에 대한 불만과 버스·택시 불친절, 버스노선 증설 요구 등이 대부분이었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는 매년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 이는 적자 보전의 의미도 크지만 서비스 개선과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시내버스만 하더라도 지난 2007년 준

공영제 실시 이후 매년 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의 수익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급정거에 난폭운전도 여전하다. 택시도 지난해 기본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으나 서비스 질 개선은 요원하다.

또한 불합리한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도 문제다. 첨단 1·2등~수완~신항~신가~운남~우산~송정동을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첨단 40분 버스가 유일하다. 운행시간도 무려 1시간19분이나 소요된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예산난 등을 이유로 당분간 노선 확대나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대중교통 편의는 시 행정의 가장 기본이다. 광주시는 민원 내용을 살펴 불친절한 운전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노선 개편과 배차 조정 등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시민의 발’이 불편하다면 광주시의 존재 이유가 없다.

無 等 鼓

40대 남성 임 모 씨는 라면 끓이는 특이한 방법을 갖고 있다. 한 냄비에 종류가 다른 두 개의 제품을 넣어 색다른 맛을 내는 것이다. 매운 맛 라면과 순한 맛의 라면을 합쳐 자신이 좋아하는 적당까지도 배려는 추세다.

#30대 미혼 여성 박 모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라면에 골뱅이 통조림을 넣어 먹는 방법을 찾았다. 일명 ‘굴뽕면’인데 요즘 그녀는 새롭게 발견한 라면 맛에 흠뻑 빠져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조리법을 어떻게 저렇게 달리쳐 먹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모디슈머’라 한다. 모디슈머(modisumer)란 영어로 변형시킨다는 뜻의 ‘모디파이’(modify·수정하다, 바꾸다)와 소비자란 뜻인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다.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개발한 방식으로 제품을 활용하는 소비자를 일컫는다.

자신만의 기호에 맞게 조리법을 바꿔서 즐기는 소비자들. 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업체가 포장지 뒷면에 상세하게 적어 놓은 표준조리법을 준수하기보다는 순서를 바꿔 색다른 맛을 내거나 서

로 다른 2개 제품을 하나로 재탄생시키는 조리법을 창조해내기도 한다.

물론 이는 처음엔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모디슈머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전략까지도 바뀌는 추세다.

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소맥’도 마찬가지다. 소주와 맥주를 함께 섞어 마시는 단순한 조합이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식품업계들은 ‘모디슈머’의 아이디어에 열심치 귀를 기울

이고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면에서 시작된 모

디슈머 열풍은 이제 주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모디슈머’라 한다. 모디슈머(modisumer)란 영어로 변형시킨다는 뜻의 ‘모디파이’(modify·수정하다, 바꾸다)와 소비자란 뜻인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다.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개발한 방식으로 제품을 활용하는 소비자를 일컫는다.

자신만의 기호에 맞게 조리법을 바꿔서 즐기는 소비자들. 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업체가 포장지 뒷면에 상세하게 적어 놓은 표준조리법을 준수하기보다는 순서를 바꿔 색다른 맛을 내거나 서

/최재호 사회부장 lion@kwangju.co.kr

의료칼럼

취학 전 아이 시력 평생 간다



문 형 진
밝은광주안과 원장

요즘 아이들은 조기 교육의 영향으로 눈을 혹사하는 일이 많다. 특히 스마트폰이 열풍으로 휴식시간에도 게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가까이 함으로써 눈의 피로를 풀어줄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시력이 나빠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물체를 보려고 인상을 찡그리게 되면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시력이 나빠도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 눈은 초등학교 입학 무렵인 7-8세가 되면 시력발달이 어느 정도 완성되며 그 전에 시력이 발달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시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시력관리는 평생시력

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시력 이상을 발견하고 치료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보통 만 3세가 되면 시력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고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시력 저하의 원인은 대개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근시가 가장 많다. 근시란 가까운 곳이 잘 보이고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눈을 말하며, 원인은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컴퓨터나 게임기 등을 눈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하는 것이 주원인이라는 추측뿐이다.

근시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없다. 그러나 너무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장시간 하게 되면, 눈의 섬모체근이 수축해 쉽게 눈이 피로해지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가성근시를 유발할 수 있다. 가성근시는 근시는 아니지만 근시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치료법이 다른만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눈 건강을 위한 올바른 환경은 적당한 조명을 갖추고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방향에 조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눈거나 옆드리지 말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 책과는 35~40cm의 거리를 두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 또 45~50분의 독서나 컴퓨터 사용 후에는 5~10분간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체 육 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제 조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